

매독 퇴치와 조기 발견·치료를 위해



2024년 1월 1일부터

매독 감염병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

‘매독(Syphilis)’이란?

수직감염, 혈액을 통한 감염, 성접촉을 통한 매독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 질환의 성매개감염병으로 잠복기는 10일 내지 3개월, 평균 3주이다.

2024년 1월 1일부터

**4급
감염병**



**3급
감염병**

전수 감시

20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은 4급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,
전수 감시가 실시됩니다.

달라지는 것 ①

“**매독 감염병 발생**
신고 의무기관이 확대됩니다.”

현재

표본감시

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

*7일 이내

24.1.1.부터

전수감시

**매독을 진단·발견한
모든 의료기관이 신고**

*24시간 이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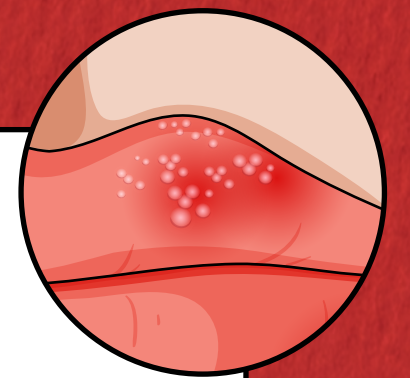
달라지는 것 ②

“매독 감염병 신고범위가 넓어집니다.”

현재

3종류 신고

1기매독, 2기매독, 선천성매독



24.1.1.부터

5종류 신고

1기 매독

잠복기는 2~3주, 경성하감, 국소 림프절 병증

2기 매독

감염 6주에서 6개월, 피부에 구진성 발진, 발열, 권태감 등

선천성매독

대개 임신 4개월 이후 발생

+

조기잠복매독

(1년 이내) 무증상

+

3기 매독

약 10년 이후, 심혈관매독, 신경매독, 고무종 발생

달라지는 것 ③

“**매독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됩니다.**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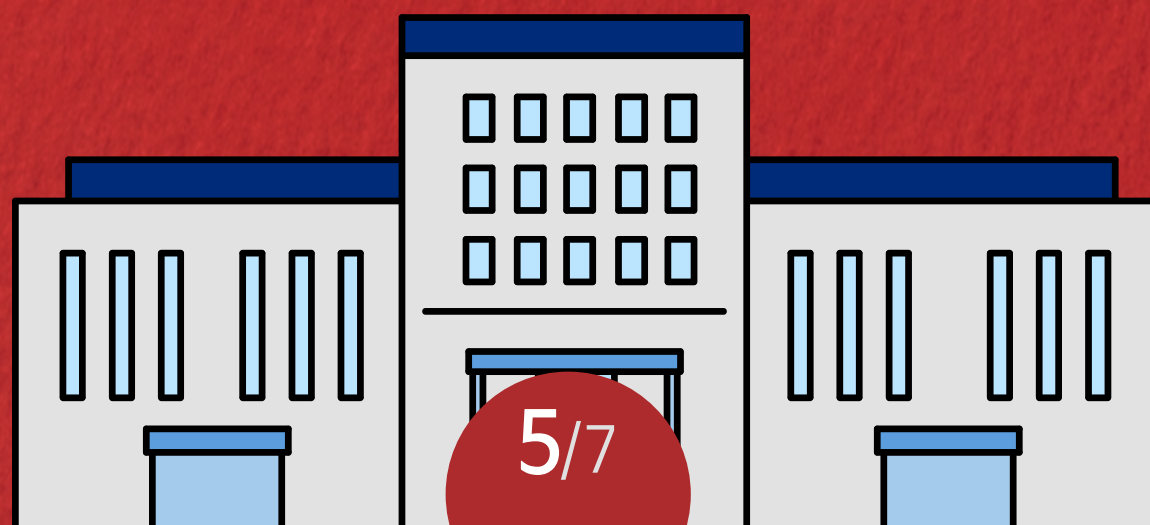
현재

역학조사 미실시



24.1.1.부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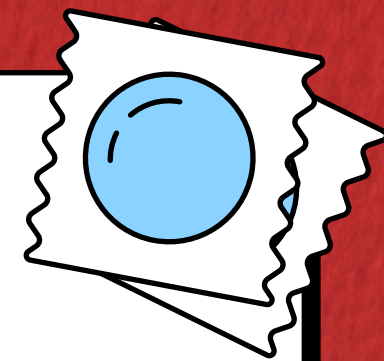
관할보건소가 역학조사



매독, 위험한 성접촉*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예방입니다.

* 익명·즉석만남 파트너와의 성관계, 잦은 성파트너 변경, 성매매를 통한 성접촉, 콘돔 없는 성관계 등

성관계 시 **콘돔 사용**하기



매독이나 다른 성병이 의심될 땐
가까운 병의원 또는 **보건소**에서
검사 받기



고소고 매독 예방의!

위험한 성접촉,

성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